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기업들, 고용확대에도 신경써야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역 내 모든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면에서도 월등한 위치를 점한다.

기업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 공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감소하는 등 '일타'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 등 지역 기업들이 불황과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추세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

광주 경제 성장불구 일자리는 되레 줄어

취업자들 지역중소 외면...의식 전환 필요

르면 2005년 현재 광주의 300인 이상 사업체는 58개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1997년(67개)보다 9개 감소한 것으로 고용창출의 주된 창구인 대형 업체가 오히려 '뒀 걸음'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난 2004년 이후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들의 이 지역 이전이 잇따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지역업체의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남지역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가 56개에 불과하다.

기업감소가 일자리 부족으로 이

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는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금융·보험업체가 지난 1995년 1천217개에 달했지만 2005년에는 1천181개로 감소했다. 전남도 해당 업종이 1995년 1천808개에서 2005년 1천546개까지 줄었다. 이같은 악순환은 지역 우수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하남산단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되레 줄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이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전체 933개 업체

의 총 생산액이 2조3천4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가 늘었지만 고용인원은 2만4천91명으로 1년 전보다 2천356명이나 줄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기업들은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소요인력을 고려한 교육체계 개편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년째 광주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오명과 관련, 취업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지역내 중소기업에 외면한 채 수도권에서 잠적적 실업자로 떠돌게 아니라, 현실한 중소기업에 눈높이를 맞추는 '지혜'를 갖춰야

6 '괜찮은 일자리' 창출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보험·IT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선진국에서는 보수, 고용 안정성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한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광주·전남은 고용 흡수력이 높은 건설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데다 상당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용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고학력 실업자나 취업 단념자들의 적극적인 취업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근로자 사랑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백화점 9층 롯데시네마에서 점장과 간부 사원들이 일반 직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가졌다. 롯데백화점은 또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선포식도 거행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산업생산 車·가전 호조

광주남구 등 노인요양보험제 실시

1분기 증가율 21%...전국 1위

광주지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생산 증가 및 수출 신장에 힘입어 지난 해 4·4분기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2분기 연속 산업생산 증가율 1위는 한국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 증가율의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

1% 상승, 전국 평균 3.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지난 해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2% 올라, 전국 평균(4.5%)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42.5% 상승한 것을 비롯해 고무·플라스틱제품(전자기기용 케이스, 포장용기) 26.9%, 기계·장비(냉장고, 에어컨, 금형 등) 17.4% 등 주력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는 광산업·금형산업 등 제조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생산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작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전년비해 12.8%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

산성 지수는 156.1(2000년이 100)로 2005년(138.3)에 비해 12.8% 개선됐다.

이 같은 생산성 개선은 산출량으로 표시되는 산업생산지수가 148.1로, 2005년에 비해 10.5% 증가한 반면 총근로시간을 나타내는 노동투입량 지수는 94.9로 2.1%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3차 시범...노인 대상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기로 하고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들로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지역은 경기도 수원, 강원도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안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이다.

대상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다음 시·군·구에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제공되며,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

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 받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월 광주 소비자 물가 0.2%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비교적 많이 올랐다.

1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전월보다는 0.2% 올랐다. 전남은 전년 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

가 2.2%, 전남이 2.0%씩 올라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1년전에 비해 광주가 대리운전 이용료(25.0%), 가사도우미(21.2%), 시내버스 요금(18.6%), 보육시설 이용료(18.1%) 등 서비스 요금이 평균 3.2%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전남은 전년 동월대비 고등학교 납입금(22.2%) 등 서비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3.2% 올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CJ 지주회사 전환 신고

금호산업·석유화학, CJ 홀스핀 지주사 역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CJ그룹이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

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재계에서는 이들 그룹에 이어 SK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CJ그룹의 CJ홀스핀 등 3개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양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금호생명 등을 각각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CJ그룹은 지주회사인 CJ홀스핀이

자회사로 CJ케이블넷과 엠블온라인, 드림씨티방송 등 5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CJ케이블넷엔터테인먼트, 드림네트웍스 등 7개사가 손자회사로 소속된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는 지난 2004년 22개에서 2005년 25개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31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8월말 이후에는 롯데산업과 롯데물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고 태평양, KPC홀딩스가 추가됐으며 올 들어 KEC홀딩스, 바이더웨이CVS홀딩스, AON21유한회사 등 3개사도 지주회사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CJ홀스핀 등 3개사의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주회사는 모두 3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중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wangShin Apartment (광신프로그레스) featuring a man's portrait, apartmen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Text includes '새로운 품격의 프리미엄이 선보입니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and '샘플하우스 OPEN 5월16일'.

Advertisement for solar panel subsidies. Text includes '주택 전기무료사용/전기로 누진세 해방/월 전기요금 4만원 이상 납부 주택소유자들에게 희소식!!', '태양광 주택설비 소요자금 정부에서 60% 무상지원!!', and '태양광 주택 설비 무상지원금 신청접수'.